

 보도자료 2013.6.5.(수)	행사문의	박 선 영 (02-3156-7108)
	언론담당	황 애 리 (02-3156-7296)
	보도일자	2013.6.5.(수)
	※ 총 3쪽 (붙임 포함) www.kwdi.re.kr	

성희롱 문제, 관련법의 효과적 개선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희롱 문제 한·일 비교”를 주제로
한일 여성 포럼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6월 5일(수)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회의실에서 “성희롱 문제 한·일 비교”를 주제로 한일 여성 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여성의 인격권 침해인 성희롱 문제에 대한 한·일 비교를 통해 한국 성희롱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최금숙 원장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선이 시급한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행사의 개최의의를 밝혔다.
- 무타 카즈에 일본 오사카대학대학원 교수는 “일본에서의 성희롱 문제-25년의 발자취”를 주제로 일본의 성희롱 인 지부터 법 제정, 그리고 현재의 성희롱 관련법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 무타 카즈에 교수는 “최근 일본에서도 성희롱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되고, 조직의 책임을 대대적으로 인정하는 판결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에는 법·제도의 재검토와 현실에 맞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어야 하다고 밝혔다.
-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장은 “한국의 성희롱 관련법은 피해자 구제와 예방에 효과적 인가”를 주제로 한국의 성희롱 사건 및 관련법의 현황과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고, 성희롱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 박선영 센터장은 “직장 성희롱 문제의 경우 여전히 고용안 정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성희롱 관련법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성희롱 피해자 범위 확대, ②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③ 업무 관련성 해석의 명확화, ④ 성희롱 성립요건의 확대, ⑤ 사용자 책임 강화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 주제발표 후에는 오카노 야요(Okano Yayo) 도지사대학교 대학원 교수, 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나영 지구지역 행동네트워크 사무국장, 신상숙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성희롱 관련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붙임 1 행사 개요

- 행사명 : [한일 여성 포럼] 성희롱 문제 한·일 비교
 □ 일시·장소 : 2013년 6월 5일(수) 15:00~18: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회의실

<프로그램>

시간	내용	
15:00~15:10		환영사 :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사회: 이미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10~16:40	발제 및 토론	발제 1 일본의 성희롱 문제-25년의 계적 무타 카즈에(오사카대학교대학원 교수) 발제 2 한국의 성희롱 관련법은 피해자 구제와 예방에 효과적인가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장)
16:40~18:00	토론	오카노 야요(도지샤대학교대학원 교수) 김진(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나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무국장) 신상숙(서울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연구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